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세안 권역



낮선 땅,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만난 한국 그리고 정(情)

구한민

작년 9월 어느 날,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개최지는 베트남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이었다. 당시 베트남이라고 하면 관광지로 유명한 다낭, 나짱, 달랏 외에는 하노이와 호찌민만 들어본 정도라 생소한 지명이었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지 않았다. 블로그에 맛집을 소개하는 글이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 팬데믹 이전의 것들이었다. 베트남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아도 여행으로 이곳을 간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준비를 할 것도, 할 수도 없이 낯선 땅으로의 여정

을 시작하게 되었다.

세 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착륙했다. 출발할 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의 가을 하늘은 공활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나서자 “Welcome! HANMIN GU”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기사님이 나를 반긴다. 반가움을 채 표현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혀왔다. 청명해보이는 하늘과 달리 북부지방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무더운 9월의 날씨였다. 더위에 취약



한 나에게서는 동남아의 기후가 달갑지 않았다. 그래도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타이응우옌은 하노이에서 차로 한 시간 가량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소도시다. 며칠 전 베트남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몇몇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기사님께 들어보니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해외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있단다. 아니나 다를까 타이응우옌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큼지막한 삼성 로고가 박힌 공장들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이 주변 박닌이라는 도시에 공장을 지었는데, 베트남 정부의 첨단산업 유치 정책에 힘입어 이곳까지 공장이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이응우옌 공장에서만 한 해 약 4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

었다.

차에 같이 탄 타이응우옌대학교 학생들은 내가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니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친구는 케이팝에 관심이 많으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줄 줄 읊었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았다. 다른 한 친구는 한국이 너무 좋아 사범대로 진학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다. 훗날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란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소도시에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듣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자못 신기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여러 측면에서 끈끈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 흐뭇함이 느껴졌다. 한국 문화를 주제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간이 흘러타이응우옌에 도착했다.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내서 그런지 도시의 첫

인상은 낯설지 않았다. 깨끗한 신식 건물들과 구옥(舊屋)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는 잎이 무성한 아열대 식물들이 보였다. 마을주민들은 순박한 미소로 이방인인 나를 맞아주었다. 호텔 꼭대기에서 바라본 타이응우옌 시내 전경은 내가 살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정감이 갔다. 숙소에서 여독을 풀려 했더니 환영만찬이 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손님이 오면 성대한 파티를 열어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 만찬은 시내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다. 다양한 베트남 전통 음식이 뷔페식으로 차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던 짜조(Chá Giò)가 특히 내 입맛에 잘 맞았다. 만찬주는 이름 모를 북부지방의 전통주를 움푹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예전에 다낭에서 마셔본 넵모이(Nếp Múi)와 비슷한 향미가 느껴졌다. 베트남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술을 권했다. 이곳 사람들은 상대방의 술잔이 비기 전에 다시 채워주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각 테이블에서는 다 같이 손 하나씩을 얹고 “요(yo)”라고 외치며 함께 술잔을 넘겼다. 이것도 베트남 고유의 음주 문화라고 한다.

다음 날에는 타이응우옌대학교 학생들이 베트남 북부지방 전통을 주제로 이색적인 무용 공연을 펼

쳐주었다. 내가 알던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Áo dài) 외에도 다양한 옷들이 있었고, 연주에 활용한 악기도 다채로웠다. 우리나라보다 국토의 면적이 세 배가량 크거니와 남북으로 긴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낯선 땅, 작은 소도시에서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전통을 지켜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 부러웠다.

오후에는 시내 구경에 나섰다. 내가 다녀온 여느 베트남 관광지와는 다르게 고즈넉하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특징적이었다. 무덥고 습한 날씨 탓에 서둘러 구경을 마치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하게 생긴 커피를 시켰는데 양이 시원찮길래 두 잔을 주문해 내리 마셔버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요동치고 등 뒤로 식



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한다. 한번 흥분된 교감신경이 잘 말을 듣지 않았다. 찾아보니 베트남 커피는 원제 카페인 함량이 높은데다가 필터로 내리지 않아 매우 강하다고 한다. 혹시 베트남에서 커피를 마실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란다.

베트남 사람들은 흥이 많고 정도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송별 만찬을 해주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맛있는 음식과 전통주 그리고 노래는 그대로였다.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삼삼오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 베트남 친구는 돈을 모아 서울로 여행을 올 테니 그때 가이드를 해달라고 했다. 공항까지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직접 바래다준다고 한다. 이방인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베트남인의 마음이 새삼 따스하게 느껴졌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타이응우옌을 꼭 다시 찾으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낮선 땅, 타이응우옌에서의 2박 3일은 베트남 사람들의 정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막했지만, 그곳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자신의 지역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한낱 다녀가는 이방인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금세 녹아들어 지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다. 그들의 일상을 함께 한 경험은 관광지 다낭에서의 그것과는 매우 색다른 것이었다.

다시 9월이 돌아오고 있다. 그새 잊어버린 기억도 있지만 여전히 뇌리에 깊게 새겨진 장면이 더 많다. 그들을 언제 다시 직접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제는 낯설지 않은 땅 타이응우옌에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낯설었던 땅,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만난 한국 그리고 정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